

대우 건설 리뷰

DAEWOO E&C
MAGAZINE
2020 7 + 8



5 + 6월호 표지 이벤트 당선작

지난 5+6월호 스티커 이벤트 당선작을 소개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중앙연구소에 펼쳐질 다양한 일상을 스티커로 표현해 주셨네요.
 7+8월호 스티커를 색칠해 알록달록한 나만의 스티커로 표지를 꾸며 주세요.
 개성이 더해진 다양한 응모작을 기대하겠습니다.



| | | |
|--|--|---|
| 개발사업팀 정희석 차장 | 필리핀 ATIMONAN 발전 PJM 송준선 과장 | 쿠웨이트 AL-ZOUR REFINERY PJ(현장) 양기민 과장 |
| 화명센터블루푸르지오현장 김지훈 과장 | 다산신도시자연엔푸르지오현장 임현재 대리 | 경산지식산업단지현장 정길영 과장 |
| 파주운정3지구A13블럭 공동주택현장 문성철 과장 | 주택건축기계팀 임성규 차장 | 주택건축전기팀 정홍규 대리 |

표지 스티커 이벤트

동봉된 정대우 스티커를 표지에 자유롭게 붙여 나만의 표지를 완성해보세요!
 스티커를 색칠하면 더욱 멋진 표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하나

스티커 표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주세요. 업로드 시 게시물에 꼭 #대우건설인 태그를 달아주세요. 그래야 이벤트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둘

스티커 표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사보 담당자 앞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때 메일 제목을 **[사보 표지 스티커 이벤트]**로 달아주는 센스!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minjung.kim@daewoen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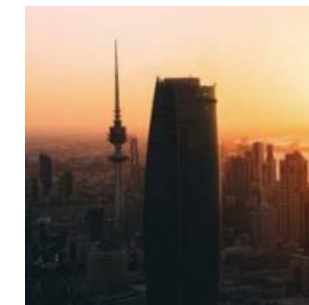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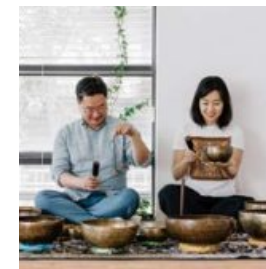
2



18



26



32

등록일자 1993년 5월 29일
 발행처 (주)대우건설
 발행인 겸 편집인 김형
 담당자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기획·편집·디자인 (주)안그라픽스 미디어사업부
 02 763 2303
 사진 황규백, 김진솔
 표지 일러스트 이시누
 인쇄 금강인쇄

| | |
|----|---|
| 2 | SPECIAL 푸르지오 신규 광고캠페인 오늘의 당신은 푸르지오에 삽니다 |
| 6 | THEME VIEW 으쌔으쌔 - 문제를 발견하고 정답을 찾아내는 팀워크 |
| 8 | THEME POLL 환상의 짝궁 또는 환상의 쿵짝 |
| 12 | THEME TALK YES OR YES? 올바른 회의의 기술 |
| 16 | THEME VISION 될성부른 리츠를 찾아라 |
| 18 | 현장STAR그램 18.4km의 황금신설노선 대곡소사선복선전철3·4공구 |
| 26 | 정대우로드 21C 아라비안나이트, 쿠웨이트 |
| 31 | WORK & LIFE 가볍게 더 가볍게, 비움의 미학 |
| 32 | 취미유발자들 청아하게 사운드 힐링 고요하게 싱잉볼 명상 |
| 36 | 내용 보고서 노폐물 빼고 활력 더하는 디톡스 |
| 38 | 주말에 뭐하지 오늘 뭐보지? 구독형 OTT 서비스 알아보기 |
| 42 | 대우건설인+ - 2020기업문화캠페인 즐거로운 대우건설인 생활 -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 정성을 담아 마음을 전해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마스크 |
| 48 | 대우건설 뉴스 2020년 7+8월 대우건설 뉴스 |
| 52 | 독자후기 |

Natural Nobility



오늘의 당신은 푸르지오에 삽니다

푸르지오가 TV 광고를 통해 아파트에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의 풍경을 전한다.
2019년 3월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새롭게 론칭한 광고캠페인의 후속작이다.

2020 푸르지오의 새 광고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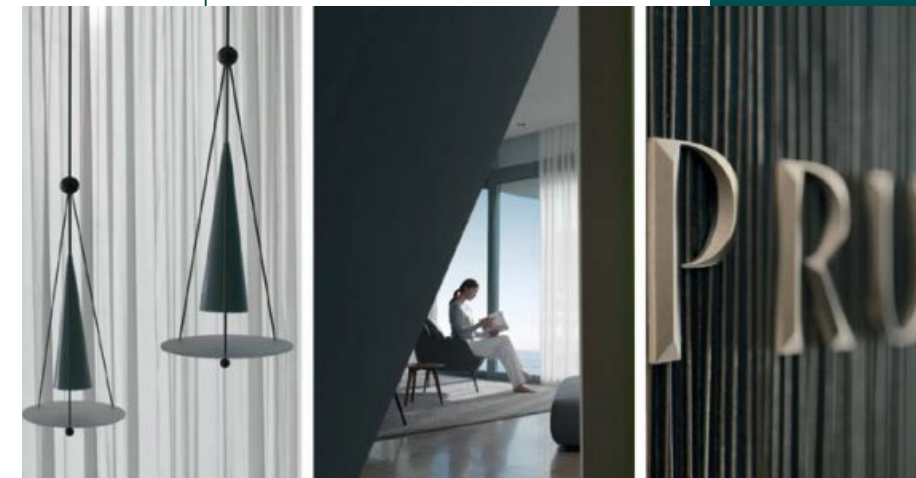
지난 6월, 푸르지오가 새로운 광고캠페인 두 편을 선보였다. 푸르지오의 새 브랜드 철학 즉, Natural Nobility(본연이 지니는 고귀함에 바탕을 둔 단지 내 공간과 서비스를 소개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푸르지오만의 차별화된 고급스러움을 전달하고자 하는 TV 광고다.

‘디자인’편은 새 디자인이 적용된 푸르지오의 실내외 시설, 조경, 건물을 담아내고, ‘클리어 시스템’편은 푸르지오의 대표 주거상품인 공기질 관리 시스템 ‘푸르지오 클리어 시스템’을 소개하며 푸르지오에서 누리게 될 프리미엄 라이프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아파트 브랜드 광고들이 화려한 이미지와 유명 모델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고급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이번 푸르지오 광고캠페인은 정체불명의 이미지나 모델을 최대한 배제하고 새로워진 푸르지오의 디자인과 상품을 전면에 부각시킨 것이 특징이다.

광고 속 장소들은 대부분 별도 제작된 세트장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고급스러운 공간이 아닌, 최근 준공된 과천 푸르지오 씨밋과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등 실제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들이다. 실제 푸르지오를 최대한 활용해 차별화된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하는 푸르지오와 광고제작사의 의도가 담겼다. 또한, 강렬한 음악을 전면에 활용해 브랜드의 세련됨과 고급스러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으며, ‘오늘의 당신은 푸르지오에 삽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남다른 안목을 가진 고객들이 선택하는 아파트라는 자부심을 표현하고자 했다.



+
‘디자인’편
광고
바로 보기





Clean 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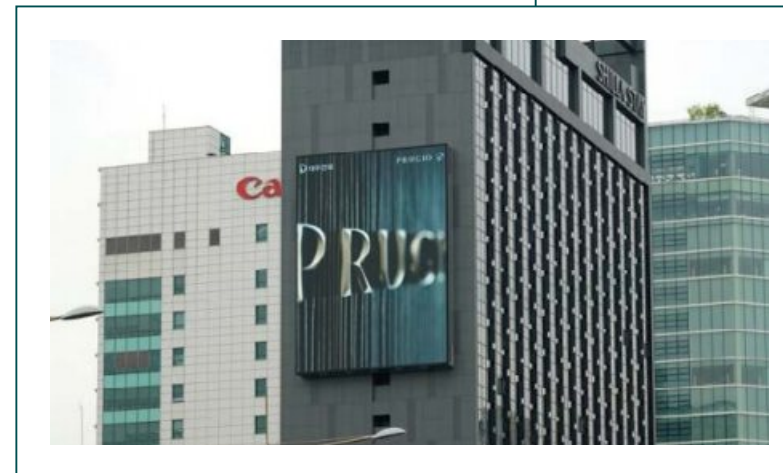
+
‘클린에어 시스템’편
광고
바로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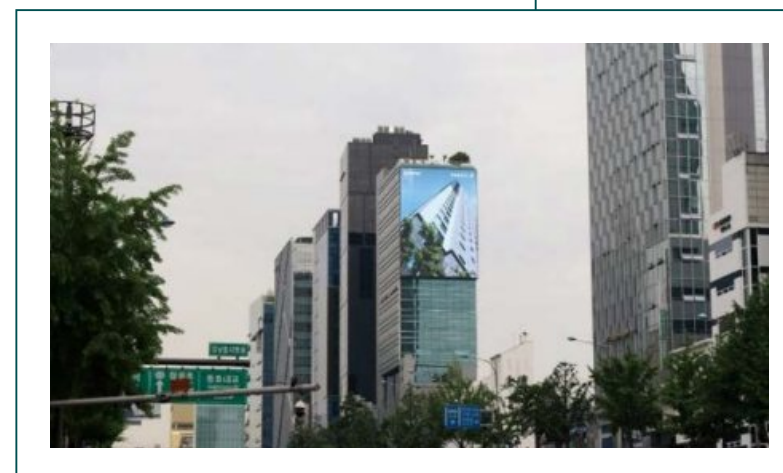
광고 안으로 들어온 뉴 푸르지오 라이프
2020년 푸르지오 캠페인은 지난 2019년 캠페인을 되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Live your life’라는 슬로건을 통해 브랜드 리뉴얼에 담긴 대우건설의 철학과 지향점을 전달했던 2019년 캠페인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강화해야 할 부분과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검증단계에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물론, 대우건설 내부 임직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사업, 마케팅, 상품 등 유관부서 30여 명의 임직원들과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했는데, 여러 부서의 공통의견은 (2019년에 이야기한) ‘새롭게 리뉴얼된 푸르지오의 실체를 직접 보고, 경험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20년의 캠페인 목표는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진 푸르지오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이를 통해 이곳에서 누리게 될 프리미엄 라이프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촬영이 실제 푸르지오 단지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스태프들이 함께 푸르지오 속 일상을 체험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한 현장이었다. 스태프들 역시 고객의 삶을 배려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남다른 철학으로 완성된 디자인을 직접 접하며 푸르지오의 근거 있는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COEX



#신라스테이_삼성



+
광고
촬영 현장
옛보기

#을지병원_사거리
#신웅타워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광고,
서울 곳곳에서 만나요**
2020 푸르지오 광고캠페인은 TV 밖에서도 고객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 을지병원사거리에 위치한 신웅타워, 신라스테이 삼성(코엑스), 을지로4가역 정산빌딩 등 옥외 LED 전광판을 통해서 9월까지 푸르지오 광고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코엑스 전시관 내부에 부착된 전광판 LED광고를 7월까지 운영한다. 여기에 서울 수도권지역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모니터 광고를 집행함으로써 특정 공간과 사람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로 고객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으쌔으쌔 으쌔으쌔

으쌔 으쌔

- 8 THEME POLL — 환상의 짝꿍
혹은 환장의 쿵짝
- 12 THEME TALK — YES OR YES?
올바른 회의의 기술
- 16 THEME VISION — 될성부른
리츠를 찾아라

문제를 발견하고

정답을 찾아내는 팀워크

긴 밧줄을 잡고 양쪽으로 편을 나누어 힘을 겨루는 스포츠, 줄다리기. 1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승부를 겨루는 줄다리기는 체육대회를 비롯해 팀워크를 겨루는 데 빠지지 않는 단골 경기입니다. 상대 팀보다 줄을 더 많이 당기면 그만인 줄다리기에 승리의 기술이 있습니다.

몸의 특정 부분에 힘을 주어 버티는 것인데요, 발목과 무릎, 허리 등 신체 관절을 굽히지 않고 수평을 유지할수록 지지하는 힘이 강해지고 에너지를 극대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기술은 따로 있습니다. 팀원 간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체중에 따라 체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자리 배치하기, 에이스 선수를 맨 뒤에 세우고 무게중심을 한곳에 모으기, 힘찬 구령을 통해 서로에게 힘 북돋우기, 구령에 따라 호흡 맞추기, 질 것 같은 순간에도 역전의 기회 노리기. 이번 7+8월호에서는 '으쌔으쌔' 구호에 맞추어 협동의 기술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환상의 짝꿍 혹은 환장의 쿵짝

좋았다가 싫었다가, 안쓰러웠다가 알미웠다가.
화성에서 온 선배와 금성에서 온 후배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명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을까? 대우건설 200명에게 팀워크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Q1

회사에서 동료와 '쿵짝'이 잘 맞는다고 느낄 때는?

나이가 비슷한 동료, 성격이 닮은 동료, 업무 보완이 되는 동료... 우리는 어떤 동료와
'잘 맞는다'고 느낄까. 동료와 잘 맞는다고 느끼는 순간을 묻는 질문에 '동료가 먼저
내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줄 때'가 1위를 기록했다.

동료가 먼저
내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줄 때
34%

관점이나 성향이
다른 동료가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지적할 때
24%

생각이 비슷한
동료가 내 주장에
힘을 실어줄 때
26%

취미나 관심사가
비슷한 동료와
대화가 끊이지
않을 때
16%



Q2

내 강점과 역량에 가장 어울리는 팀플레이 포지션은?

인간관계와 업무
흐름을 유연하게,
미드필더
50%

팀원을 파악하는
분석력과 전체를 보는
통찰력, 감독
15%

치밀한 방어력과 문제
해결력으로, 수비수
15%

추진력과 자신감으로
돌격, 공격수
14%

공지에 몰리더라도
의연하고 집중력있게,
골키퍼
5%



Team Play

능력과 경험, 타고난 성격에 따라 잘 할 수 있는 역할이
나뉘기 마련이다. 내 특성에 맞는 팀플레이 포지션을
묻는 질문에 절반의 응답자가 '인간관계와 업무 흐름을
유연하게 만드는 미드필더' 역할에 자신 있다고 말했다.
기타 의견으로 '어디서든 적절한 역량을 발휘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등이 있었다.

Q3

피로야 가라! 일상 속 동료의 행동 중 내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막힌 곳을 뚫어
드립니다,
문제 및 고민 해결
45%

기쁜 일은 두 배가
되고 슬픈 일은
절반이 되도록, 공감
35%

웃다 보면 힘든 일도
잊게 되는, 유머
18%

피가 되고 살이 되며 정이
되는, 간식 공급
2%



Power Up

일하다 보면 육체적으로 힘든 일, 자연과 사투를 벌이는 일,
시간이 촉박한 일 등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우리는 동료의 어떤 행동에
기운을 얻을까? '문제와 고민 해결', '공감'이 차례로
1,2위를 기록했다.

Q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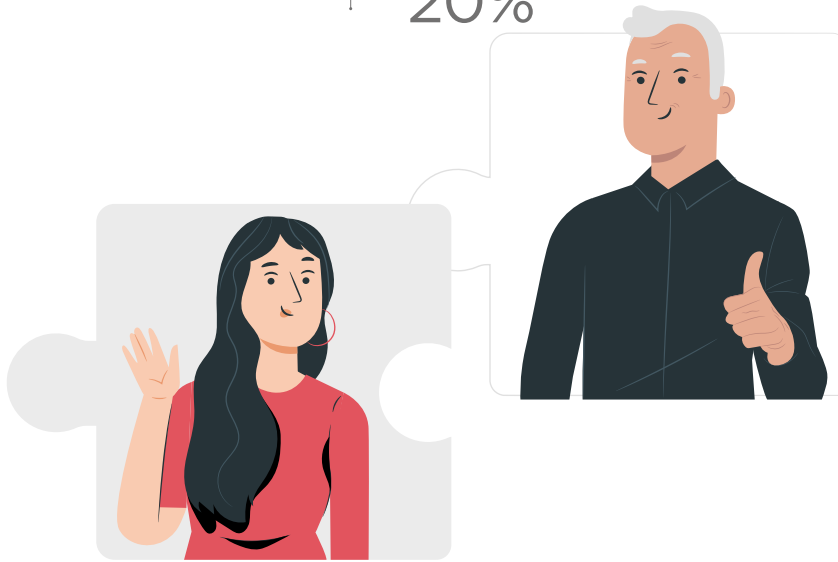
팀워크를 복돋우는 동료 유형 중 가장 선호하는 캐릭터는?

마르지 않는
긍정의 샘물 같은
'좋아요정형'
31%

소외 받는 사람
없게 살뜰히 챙기는
'이삭줍기형'
29%

리더십 있고
행동력 좋은
'나를따라라형'
20%

대화가 필요하면
언제든 이야기해
'대나무숲형'
20%



Like

팀워크를 복돋는 동료 중 가장 선호하는 캐릭터를 묻는 질문에, 소외 받는 이 없도록 주변 사람을 챙기는 '이삭줍기형'과 긍정의 샘물 가진 '좋아요정형'이 1, 2위를 차지했다. 리더십 있고 행동력 좋은 '나를따라라형', 편안히 대화할 수 있는 '대나무숲형'이 이어 3, 4위를 기록했다.

Q5

팀워크를 떨어뜨리는 동료 유형 중 가장 싫은 캐릭터는?

실속만 챙기고
나머지는
모른 척하는
'나만아니면돼형'
46%

사사건건 불평과
불만 많은
'아니글쎄형'
42%

앞에서 친절하고
뒤에서 욕하는
'아수라백작형'
9%

너 내 편 맞지?
편 가르는
'청군백군형'
3%



Hate

팀워크를 떨어뜨리는 동료 유형 중 가장 싫은 캐릭터 1, 2위는 실속만 챙기고 나머지는 모른 척하는 '나만아니면돼형', 사사건건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는 '아니글쎄형'이 꼽혔다. 기타 의견으로는 '일을 안 하려고 주변 눈치만 보는 사람, 전부 다 싫어서 우열을 가릴 수 없음' 등이 있었다.

Q6

이럴 바엔 차라리 혼자인 게 낫지!
회사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은?

팀 업무를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때
33%

팀원들이 내 입장과
업무 견해를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
30%

팀원들과 성향이나
관심사가 너무 다를 때
19%

공통 업무가 없어 일과
관련된 기쁨과 슬픔을
공유할 사람이 없을 때
16%



Lonely

회사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을 묻는 질문에는 '팀 업무를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때', '팀원들이 내 입장과 견해를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가 차례로 1, 2위를 기록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능력이나 마인드 차이를 합리적인 업무 부담이 되지 않을 때, 친한 그룹이 나누어져 다른 그룹 뒷담화하는 것을 볼 때' 등이 있었다.

Q7

팀워크를 위해 가장
필요(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역할 부담을 통한
기여감 및 소속감
부여
48%

명확한 공동 목표
정립 및 공유
27%

서로에 대한 인간적
이해와 인정
15%

팀원별 업무 강점과
약점 파악 및 공유
10%

Teamwork

팀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는 약 절반의 응답자가 '역할 부담을 통한 기여감 및 소속감 부여'라고 답했으며, '명확한 공동 목표 정립 및 공유', '서로에 대한 인간적 이해와 인정', '팀원별 업무 강점과 약점 파악 및 공유'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YES

OR

YES?

올바른 회의의 기술

회의는 일방적인 지시와 업무 분담의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시선과 견해를 통합해 최선의 해법을 찾는 과정이다.

팀워크를 쌓아 올리는 값진 시간이 되느냐,
그동안 쌓아온 관계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느냐는
참석자들의 회의력에 달렸다.

1

진행하는 자, 회의의 방향키를 쥐어라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꼽으라면 단연, 진행자다. 그가 주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를 마치지 않았다면 회의는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 진행자는 최소 1시간 전에 참석자들에게 안건과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인식시켜야 한다. 많은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모으는 것, 해결책을 찾는 것 등 회의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 역시 참석자들의 태도를 하나로 모으는 방향키다. 회의 참석자는 의사 결정권이 있거나,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회사의 이슈를 공유한다는 의미로 참석자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면 참여자들의 적극성과 집중도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회의 초반 5분을 적극 활용해 사람들에게 문제의식을 던지고 참여자들의 사고회로를 정비하는 것도 좋다.

세이브더칠드런의 CIO 앤디 윌리엄스는 회의 초반 5분을 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 쓴다. 같은 회의장에 모여 있더라도 모두가 회의 목적을 인지하는 것은 아니며 초반 5분에 목표를 공유하고 해결 과제를 인지시킨다면, 참여자들은 이 회의의 목적과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2

나는 참여하는 자일까, 서성이든 자일까

진행자가 방향키를 쥐고 전체를 진두지휘한다면, 실질적으로 배의 노를 젓는 것은 참여자들이다. 테슬라의 CEO인 엘론 머스크는 본인과의 회의에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직원을 해고할 만큼 회의 준비에 굉장히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엘론 머스크는 테슬라 직원들에게 “회의에 참석할 때 상대방에게 어떤 가치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회의에 참석하지 마세요. 회의에 불참하는 것이 무례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무례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간혹 회의 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며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회의장에서는 부장, 과장, 신입사원이 모두 평등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신입사원의 경우 ‘내가 선불리 말했다가 틀리면 어떡하냐’라는 생각에 의견을 내는 데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회의는 의견을 내는 것에 당위성을 부여받은 자리이며, 모든 참석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다. 이때는 상사의 피드백도 중요하다. ‘모르는 소리 하네’라는 태도 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고 그 생각의 시작점에 주목해야 한다. 산업적인 경험이 적은 신입사원의 시각은 업계 관행이나 요령과 거리가 멀어 오히려 새로운 생각의 씨앗이 될지도 모른다.

3

**주장과 근거는 기본,
회의용 언어는 필수**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전달력에도 신경 써야 한다. 발언권을 얻은 뒤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참여자들의 집중도까지 해칠 수 있다. 의견을 말할 때는 결론부터 말한 뒤, 뒷받침하는 근거를 대도록 한다. 또한, 부서 내에서만 쓰는 전문용어나 약어보다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회의용 언어를 사용해야 모든 참석자가 같은 의미를 인지할 수 있다. 은유적이거나 비유적인 예시도 이해를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한다. 침착한 어조와 분명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때 염두 해야 할 것은 직책과 권한을 넘어 각자 소신 있게 발언하되, 정중하고 예의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점이다. 누군가 발언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것 역시 당연한 에티켓이다. 옆 사람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확인 받거나,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내 아이디어에 대한 근거를 찾느라 골몰하는 것은 다른 참석자의 의지를 꺾고 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니 각별히 주의하도록 한다.



직책과 권한을 넘어
각자 소신 있게 발언하되,
정중하고 예의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



4

**회의 속 1분 1초,
아껴 쓰고 나눠 쓰자**

회의는 모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모인 자리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블랙홀 회의’는 참여자들의 피로도만 높일 뿐이다. 시간이 길어도 좋은 회의는, 회의의 진행자(리더)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으나 누군가 그 방향에 대한 의의를 제기해 함께 더 나은 생각을 도모할 때다.

실리콘밸리에서는 회의의 기본을 30분으로 잡고, 1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을 암묵적인 규칙으로 삼는다. 특히, 회의가 끝날 때쯤 다른 주제를 던지거나 잡담을 늘어놓지 않도록 한다. ‘그럼 이 주제는 어떻게 생각해?’ 등의 새로운 방향 제시는 지금까지 도출한 결론까지 흐지부지하게 만들 수 있다. 새로운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실현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새 회의 안건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회의의 마무리 역시 중요하다. 회의 후 참여자들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것 역시 진행자의 역할이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무슨 일을, 언제까지, 누가 해야 하는지 그리고 논의가 필요할 때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까지를 문서로 정리해 팀원들과 공유하도록 한다.

회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참석자 유형

1

지각쟁이형

분명 시간을 정해 놓았는데
매번 회의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
한 사람의 늦잠이 모여
여러 사람의 시간이 허비된다.
내 시간만큼이나 타인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할 것.

2

모두까지형 & 다좋아요형

상대방의 의견을 일단
무시하는 사람 혹은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사람.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비동의할 때는 항상 근거와
이유를 덧붙이도록 한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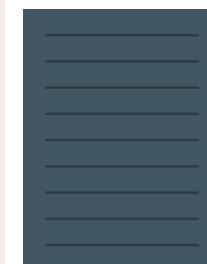
의식의흐름형

회의 주제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말하는 사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회의 안건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회의 진행자 CHECK LIST

- 회의 진행 시나리오는 준비되었는가?
- 회의 종료시간을 설정하였는가?
- 참석자에게 균등한 발언기회를 주고 있는가?
- 참석자 전원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가?
- 상호 커뮤니케이션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가?
- 토의순서 및 안건별 시간관리는 적절히 배분해 진행하고 있는가?
-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행책임자를 선정했는가?
- 회의 종료 후 결론 및 합의점, 추후 보완점을 정리해 공유했는가?
-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될성부른 리츠를 찾아라

매년 건설업계는 올해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건설경제 침체가 장기화에 돌입했고, 코로나 19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가중된 탓이다. 위기극복의 DNA를 외치며 기업가치 제고와 수익성 향상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한 때다.

최근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리츠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상가나 빌딩 등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다. 특히 상장 리츠의 경우 부동산을 주식과 같이 사고팔 수 있으며, 직접 투자보다 적은 자금으로 오피스, 상가 등에 투자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대출 및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등 실물 자산에 대한 직접 투자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리츠 시장도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는 업계 최초로 리츠를 활용해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 내에 해외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등 투게더투자운용과의 협업으로 다양한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사가 출자한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투게더투자운용’이 공급하다 — 투게더 투자운용은 작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한 지 6개월 차인 신생 회사다. 현재 임직원 10명으로 모두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투게더투자운용의 출자자로 교보증권, 기업은행 등의 금융사가 참여했으며 임대관리 전문기업인 해피투게더하우스도 함께 출자함으로써 금융·시공 및 PM·임대관리 등 각 사의 전문성이 융합되어 개발사업의 영역 확대와 자금조달력 등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투게더투자운용을 어느 한 회사에 종속적이지 않은 독립적 리츠 자산관리회사로 육성하고자 하는 주주사들의 의지를 반영해 단독 최대 주주 구조를 택하지 않았으며, 실제 회사의 운영도 주주사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화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등 타 건설사들이 자회사화해 운영하고 있는 자산 관리회사와는 궤를 달리해 차별성을 꾀하고 있다.

신생 개발사업팀을 소개한다면 — 신사업본부 개발사업팀은 기존 건설사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팀이다. 기존에 회사가 수행한 PJ의 유형이 대부분 도급 위주의 사업이었다면, 개발사업팀은 ‘부동산 개발·시행’과 ‘자산매입·운용’을 포함한 부동산 밸류체인 전반의 개발이익 극대화 및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건설사 내에서 시행사 또는 자산운용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건설사 내 시행사 또는 자산운용사 역할’이라는 표현이 잘 와 닿지 않는다 — 부동산 개발이 고도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회사를 비롯한 많은 건설사들이 시공의 영역에서 벗어나 시행·자산운용의 영역으로 밸류체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그룹의 SK D&DL, GS건설의 자이S&D 등 자회사를 통한 시행 또는 소규모 시공 영역에 진출하거나 현대산업개발의 HDC자산운용, 대림산업의 대림AMC 등 자산운용업에도 진출하는 등 많은 건설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신사업본부는 개발사업팀의 신설과 더불어 작년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자산관리회사인 ‘투게더투자운용’ 창립으로 건설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로 회사의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투게더투자운용
사업소
조규태 대리

구체적으로 대우건설과 투게더투자운용 간의 시너지 창출 방안을 알고 싶다

— 우리가 투게더투자운용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우리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우호적인 자산운용사(AMC: Asset Management Company)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리츠나 펀드 등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회사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투게더투자운용과의 협업 모델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사업정보를 초기에 얻을 수 있는 자산운용사의 특성상, 수집된 정보들을 회사에 적시에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역할이다. 이를 통해 회사는 더 많은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리츠에 담아 운영수익을 창출하는 등 개발된 자산을 단순히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 단순 시공이익 외에 다양한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다 함께 노력하고 있다.

개발사업팀과 투게더투자운용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 개발사업팀은 전사 차원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올 상반기에 두 건의 사업을 투자심을 통과해 진행하고 있다. 이는 개발사업팀만의 업적이 아니라, 회사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갈증 해소를 위해 전사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개발사업팀은 더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발굴하고, 수익모델 다변화 및 수익성 극대화를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투게더투자운용은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회사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개발사업에 참여해 구체적인 협업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별도의 파트너사들을 상대로 다양한 자산 발굴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어 ‘3년 내 자산운용사 Top 10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직원들께서도 투게더투자운용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개발사업팀
정희석 차장

개발사업팀
최종세 과장

18.4km의 황금 신설노선 대곡소사선복선전철 3·4공구

서해선과 경의선을 남북으로 연결하며 '철도 화물 운송 활성화', '경기지역 경제 부양', '수도권 서북부에 원활한 교통편의 제공' 등 거창한 수식어들로 주목받고 있는 대곡소사선이 전 구간 터널 관통을 완료했다. 여기에 일산역까지의 연장 운행 확정으로 '황금노선'이라는 불리는 대곡소사선, 그 황금노선의 중심에 대곡소사복선전철3, 4공구현장이 자리하고 있다.

4공구 3.463 km 길이

정거장 1 개소
환기구 4 개소

85.4 m 최고 심도

100 m 최고 심도

3공구 4.933 km 길이

60 month+a
공사 기간 16.06.30 - 21.06.29 (연방협의를중)

정거장 1 개소
환기구 3 개소



더 빠르게! 더 가깝게! 대곡소사선을 향한 기대

부천시 소사역과 고양시 대곡역을 잇는 총 18.4km의 신설노선, 대곡소사선. 5개의 정거장이 시공될 예정인 이 노선이 개통되면, 대곡에서 소사까지의 이동시간은 67분에서 16분으로 무려 51분이 단축되는 효과를 불러온다. 대우건설은 대곡소사선의 총 5개 공구 중 3공구와 4공구를 주관으로, 5공구를 비주관으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저희 현장은 총연장 18.4km 중에서 본선터널 3.463km에 원종역(예정)과 환기구 4개소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다른 열차가 공용으로 다닐 수 있는 즉, 단선과 복선의 병렬식 터널 구조가 특징입니다. 지하철 9호선의 급행열차처럼요.” 4공구현장을 총괄하는 오동욱 소장의 설명이다. 4.933km 구간에 작업을 진행 중인 3공구현장의 김태성 소장은 “저희 현장 역시 1개소의 정거장과 3개소의 환기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당초 신설역으로 계획했던 정거장이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선과의 환승역으로 변경되면서 수도권 서부 교통 취약 지역의 서울 진입과 김포공항역 접근이 더욱 용이해질 예정입니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곡소사복선전철은 북측으로는 경의선, 남측으로는 소사원시선과 이어지면서 서해선에 직결되는 구조로 시공되고 있다. 실제로 대곡소사선의 개통이 완료되면 하루 약 23만 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북부지역의 출퇴근 교통난에 획기적인 단축을 가져올 전망이다.

터널의 변신은 무죄

터널의 주 공정의 굴진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야간 작업을 이어왔다는 대곡소사복선전철3, 4공구현장.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3공구현장의 김주호 과장은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장 지하부에 위치했던 정거장이 환승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굴진을 통한 터널 정거장과 도로면의 땅을 파고 시공하는 개착정거장. 이 두 정거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은 더욱 높아졌죠”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유로 3공구현장에서는 더 까다로운 시공조건에서 터널을 만들어야 했다.

3공구 개착 정거장의 최고 깊이는 100m. 평균 깊이만도 70m에 달한다. 깊이와 높이를 가능한 늘린 이유는 이미 운행 중인 노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함이다. 더욱이, 운행 중인 노선의 역사 사이, 협소공간에 구조물을 시공한 사례가 없기에 3공구 현장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스터디를 계속 이어나가야만 했다. 또한 일반 발파 대신 암파쇄 공법(지반에 구멍을 뚫고 암을 파쇄)을 적용해 인접 구조물에 미치는 진동을 최소화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공정이었다. 여기에 김포공항의 이륙시스템과 인접한 노선으로 시공하면서 공장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의 진동과 소음관리가 필요했다. 3공구 직원들은 한층 강화된 기준 적용과 자동화를 통한 지하 수위 계측, 진동 소음 등 실시간 계측을 통한 피드백으로 굴착공사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터널공사에서 안전 문제는 늘 상존해 있습니다. 저희 현장도 터널 굴진에 이어 구조물 작업까지 고위험 정밀 작업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직원들과 함께 현장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무재해 관리와 최고의 품질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3공구 김태성 소장

이미 운행 중인 노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3공구현장에서는 가능한 깊고 높은 터널을 만들어 공사를 진행한다.

터널 시공 기술의 집약체

3공구현장이 운행노선의 허브화로 주목받았다면, 4공구현장은 급행열차 운영을 위한 열차대피선 시공 그리고 이를 위한 아치 공법으로 그 특수성을 인정받았다.

“저희 현장은 속도가 다른 열차가 공용으로 다닐 수 있는 열차 대피선이 있어요. 정거장 앞뒤로 열차가 다니는 터널이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지는 형태로 설계되었죠. 때문에 본선구간의 복선터널과 정거장 구간에서 터널 폭이 달라지는 다양한 터널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를 총괄하는 김기식 부장 뒤로, 하나의 터널 뒤에 또 다른 두 개의 터널이 보이기 시작한다. “저희와 동일한 방법으로 아치 공법을 시공한 사례가 없었어요. 참고할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매뉴얼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시공했습니다. 혹여나 놓치는 작업이 있을까 하여 직원들과 브레인스토밍도 많이 했고요. 터널 단면 안에서 터널 시공의 모든 기술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고난이도의 공사였습니다.” 김부장의 자부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엘리베이터 시공을 위한 수직 터널과 에스컬레이터 시공을 위한 경사 터널 마무리 등, 현재 터널 굴착이 완료된 대곡소사복선전철3, 4공구현장에서는 구조물 작업과 터널벽면 콘크리트 시공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작업 사인물과 라이닝 폼 위로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자태를 뽐내는 대단면 터널에는 지난 4년간 함께한 직원들의 노력과 현장의 고군분투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민원인보다 더 깐깐하게

터널공사의 경우, 발파로 인한 주변의 소음과 진동 그리고 민원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로 꼽힌다. 특히나 도심지를 관통하는 대곡소사복선전철4공구현장에서는 터널굴착으로 인한 민원에 대응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 소량의 폭약을 이용해 암반을 부수면서 터널을 만드는 'NATM 공법'을 이용해 굴착을 진행했다. 파고 싶은 굴의 방향을 정해 드릴과 같은 기계로 작은 구멍을 뚫은 후 지반의 강도, 지반 위 도로나 건물 등의 상태 등을 고려해 폭약의 세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는 공법이다. 현장에서는 3.4km에 달하는 본선터널 구간을 하루 2번 발파하여 2-4m 굴진을 진행했다. 법적 진동기준치가 초당 0.3kine인데, 현장에서는 0.2kine을 넘어선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인접 주민들에게 굴진을 통해 소음과 진동이 사라지는 공정을 설명하고 공공목적의 공사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며 민원인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자 노력했다.

김포공항 하부를 통과하는 3공구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3공구현장도 같은 NATM 공법으로 굴착을 진행했고, 법적 기준치보다 엄격한 공항 측의 요구 기준을 하회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공항 측의 큰 민원 없이 굴착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소통과 참여로 견인하는 안전문화

지하구조물 시공은 공사 난이도가 높은 만큼 붕괴사고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여기에 정거장 위치의 변경, 예상치 못한 연약지반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대곡소사복선전철3,4공구현장의 철저한 안전·환경 관리는 성공적인 굴착을 가능하게 했다. 회사의 고유 안전문화 프로그램인 'CLEAR'를 기반으로 한 안전 활동에,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근로자 중심의 안전 활동으로 고난이도 공사에도 중대 재해 없이 고위험 공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3공구 안전을 담당하는 백지용 과장은 '예기치 못한 재해의 선제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생각만 하는 안전이 아닌 실천하는 안전으로, 전 구성원이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4공구의 오준호 차장은 '안전관리에 있어 요행을 바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잘못된 관행에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는 관계개선 활동을 통해 서로 믿음을 공고히 함으로써 사고 없는 현장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굵직한 설계변경으로 아직 개통일이 정해지지 않은 대곡소사선. 앞으로 남은 1년여의 공사기간 동안에도 현장관리와 안전관리 모두 지금처럼 완벽하길 바라본다.

4공구현장은 급행열차 운영을 위한 열차대피선 시공 그리고 이를 위한 아치 공법으로 그 특수성을 인정받았다.



“열악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야간 근무를 병행하며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안주하지 않고 남은 1년여의 공사기간 동안 더 파이팅하여, 수익성 좋은 프로젝트로 토목본부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공구 오동욱 소장





♡ Q 📌 #4공구_단체샷 #하늘을_나는 #비행기처럼 #앞으로 #쭉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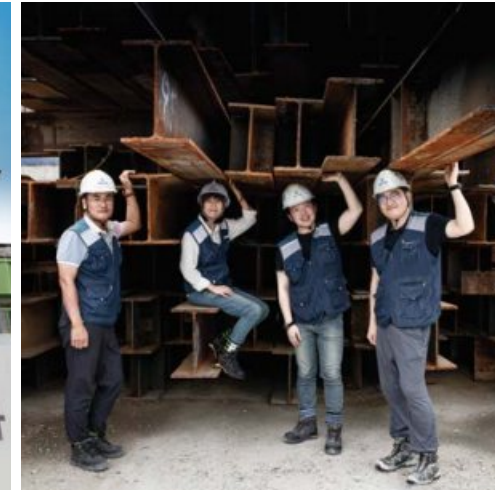
♡ Q 📌 #3공구_단체샷 #지하의_안전을_지키는 #우리는_지하의_슈퍼맨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 Q 📌 #3, 4공구 #시스템팀 #활짝_웃어볼까



♡ Q 📌 #4공구 #공무팀 #태양을_피하고_싶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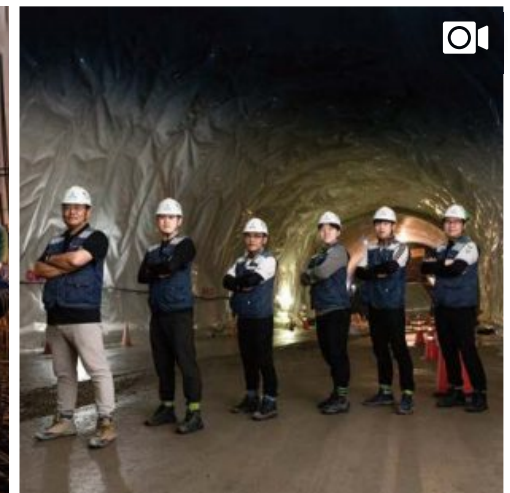
♡ Q 📌 #3공구 #안전팀 #안전 #슈퍼울트라매직 #그웨잇



♡ Q 📌 #4공구 #안전팀 #모두 #손머리위로 #하트



♡ Q 📌 #3공구 #공사팀 #든든하고 #능률하게



♡ Q 📌 #4공구 #공사팀 #간격을 #맞춰 #서보자구



♡ Q 📌 #3공구 #품질팀 #방수포 #배경으로 #찰칵찰칵



♡ Q 📌 #3공구 #공무팀 #아외에서도 #엄지척



♡ Q 📌 #4공구 #품질팀 #뒤통지고 #카리스마있게

21C 아라비안나이트

KUWAIT

아라비안나이트의 천일야화는 아랍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꼽힌다.
아랍어판 아라비안나이트의 주 무대는 현재의 이라크 즉, 바그다드와 남부 바스라다.
하지만 아라비안나이트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알라딘과 신밧드가
바다로 출항하던 지점에서 이라크 남부 바스라 근처에 위치한
쿠웨이트를 만날 수 있다.



관광의 중심국가를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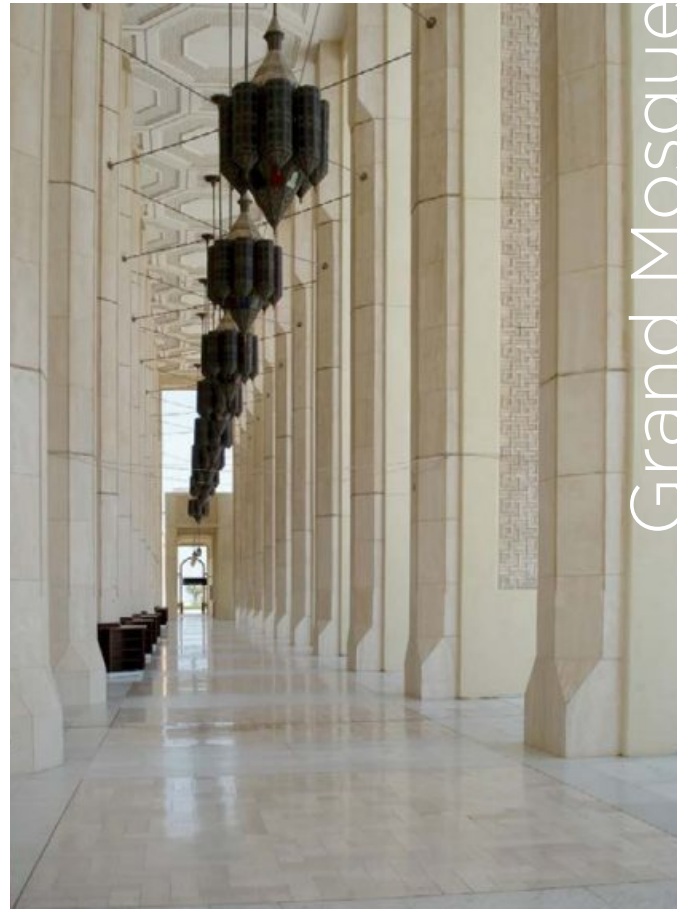
우리나라 경상북도 크기의 작은 나라 쿠웨이트는 걸프 만 최북단 서쪽에 위치한다. 1961년 영국의 보호령에서 독립하기 전까지, 사실상 쿠웨이트는 이라크와 한 나라였다. 현재 쿠웨이트는 약 140만 명의 자국민과 300만이 넘는 외국인 거주자가 조화롭게 살고 있다. 쿠웨이트의 천일야화가 아랍어판으로 등장한 약 1,200년 전 암바시아 이슬람제국의 다문화 상황과 유사하다. 바그다드를 수도로 삼았던 암바시아 제국은 세계 무역의 중심이었고, 따라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거주하며 다양한 인종이 드나들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설화가 더해져 아름다운 이야기 아라비안나이트로 재구성된 것이다.

쿠웨이트의 경제는 이슬람 문명에서 가장 융성했던 암바시아 왕조의 경제 상황과 유사하다. 현재는 세계적인 저유가로 다소 낮아졌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1인당 GDP가 평균 6만 달러 전후를 기록했다. 임금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계산한 수치이기에 쿠웨이트 자국민의 실질 국민소득은 10만 달러를 훌쩍 넘는다. 주로 석유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쿠웨이트는 몽환적인 21세기 아라비안나이트를 거친 사막에 재현하고 있다. 18세기 초부터 진흙벽돌로 집을 짓고 어업, 진주 채취, 무역 등에 종사하던 쿠웨이트 국민은 이제 천일야화 속 양탄자를 타듯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기업과 협력해 중동의 금융, 물류 그리고 관광의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몽환적인 아랍의 정취가 담긴 건축물

쿠웨이트에서 아라비안나이트의 신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곳 중 하나는 그랜드 모스크다. 쿠웨이트 최대의 이슬람 사원으로 1986년에 문을 열었다. 기하학적 문양을 특징으로 하는 아라베스크 양식이 사원의 구석구석을 장식한다. 여기에 현대 건축기술이 조화를 이루어 환상적인 외관과 내부 장식을 자랑한다. 6천 평 면적으로 1만 명을 수용하는 사원 내부 중앙의 천정이 압권이다. 지름 25m 그리고 높이 43m의 돔 안에는 알라의 99개 다른 이름이 아름다운 아랍어로 수놓아져 있다.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제공되는 해설 가이드 투어는 여러 번 가서 들어도 싫증이 나지 않을 것이다. 사원의 아랍어 서체가 눈길을 끌었다면, 차를 타고 15분 거리에 있는 타리크 라잡 서체 박물관으로 가면 된다. 3만여 점의 다양한 서체 작품이 발길을 붙잡는 곳이다.

아라베스크 문양과 현대적 건축이 조화를 이룬 대표적인 랜드마크는 쿠웨이트 타워다. 걸프 만 연안에 위치한 타워형식의 건물로, 현대 쿠웨이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이다. 사원의 첨탑을 닮은 세 개의 타워가 조화를 이루며 쿠웨이트 중심가 전역을 내려다보고 있다. 두 개의 파란 공 모양 부분이 있는 타워가 187m의 가장 큰 타워다. 아래쪽 공은 123m 지점에 있으며 회전하는 전망대 겸 레스토랑이 있다. 이곳에서 식사하며 쿠웨이트 시내를 조망할 수 있다. 두 번째 타워는 145m 높이의 급수탑이며, 파란 공이 없는 세 번째 가장 작은 타워는 전력 공급 제어장치를 담고 있다. 외부에서 파란 공을 수놓은 아랍의 최고 장식을 감상하고, 전망대에서 야경을 보면 아랍의 화려함에 도취될 것이다. 매년 2월 25일 이라크 침공으로부터 해방된 기념일에는 대규모 불꽃 축제가 이곳에서 펼쳐진다.



Grand Mosque



기하학적 문양과 아라베스크 양식이 돋보이는 그랜드 모스크 사원 내부



쿠웨이트에서 가장 오래된 무바라키야 전통시장에서는 갖가지 향신료, 의류 등을 만날 수 있다.



Kuwait Tower



Avenues Mall

동서양 쇼핑 문화의 공존

쿠웨이트가 속한 아랍은 동양 문명권이다. 우리의 과거 전통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 동양의 정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은 무바라키야 전통시장이다. 쿠웨이트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으로 전통시장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이다. 쿠웨이트 전통 의류, 먹거리, 향신료, 잡화, 금은 장신구가 수채화 그림 한 폭처럼 진열된 매장을 자주 볼 수 있다. 더욱이 쿠웨이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차를 마시고 가라는 점주, 흥정하자는 상인, 호객하는 높은 목소리가 어우러져 생동감이 넘쳐난다. 특히 손님을 지극히 모시는 우리와 비슷한 현대의 정신이 넘쳐난다. 조금만 친해져도 음식 대접은 일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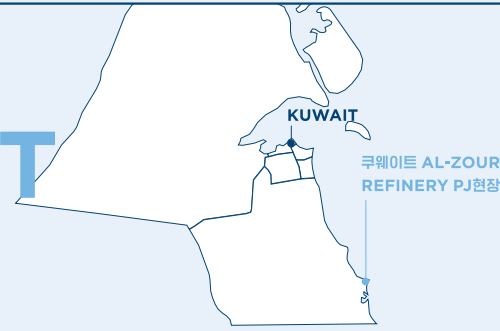
뜨거운 날씨로 인해 쿠웨이트 현지인의 최대 소일거리는 단연 추울 정도로 에어컨이 가동되는 곳에서의 쇼핑이다. 그 중 가장 크고 현대적인 쇼핑몰은 에비뉴 몰이다.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몰에 이어 중동에서 두 번째 큰 쇼핑몰이다. 고양 스타필드의 6배 정도 규모로 한 바퀴 도는데 3시간 정도 걸린다. 영화관, 식당가, 커피 전문점도 다수 있으며 유럽과 아랍 양식의 건축 양식을 가진 매점들을 둘러보면서 거의 모든 명품, 로드샵 브랜드를 만나 볼 수 있다. 실내 광장 위의 높은 돔 아래에서 커피를 마셔보자. 동서양 문명이 교차하는 실�크로드 위에 선 기념일 것이다.

WRITER



서정민
한국외대 중동아프리카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중동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중앙일보 카이로 특파원으로 활동했다. 30여년 중동 연구와 10여년 이상의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책 <인간의 땅 중동>, <오늘의 중동을 말하다>, <이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등을 집필했다.

FROM KUWAIT



쿠웨이트에서 온 편지

안녕하세요. 쿠웨이트 AL-ZOUR REFINERY PJ현장입니다.
 지금쯤 한국은 한창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네요. 여기 쿠웨이트 현장 직원들도 매일 작업하는 태양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최고 기온이 47도를 웃돌다 보니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래도 습도가 낮은 편이라 불쾌지수는 생각보다 높지 않답니다.
 또 빵빵한 에어컨 시설 덕분에 '이 정도 더워죽어야-'하는 생각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거센 모래폭풍도 더위에 버금가는 기후 특성인데요. 모래폭풍이 시작되면 현장 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사장님의 현장 방문을 앞두고 모래폭풍의 기미가 보였는데요. 신기하게도 사장님 도착 며칠 전부터 바람의 세기가 잦아들기 시작하더니, 방문 하루 전날에는 단비까지 내려 먼지로 가득했던 하늘이 맑게 개였습니다. 덕분에 사장님도 최고의 날씨 속에서 현장을 둘러보실 수 있었답니다.
 혹시 저희 현장을 궁금해하실 직원들과 가족들을 위해 이번에는 현장의 분위기를 전해볼까 해요. 저희 AL-ZOUR REFINERY PJ 현장은 미국의 FLUOR사, 현대중공업과 JV를 구성해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회사의 경영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각 사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여 PJ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운영에 대한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 여러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년 연말에 열리는 송년회입니다. 각 사별로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직원들이 본인의 기량을 뽐내며 무대를 누비고는 하는데요. 언뜻 보면 각 회사 간의 경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무대를 장악하는 그들의 퍼포먼스는 심사위원과 특정 팀을 응원하는 직원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버리고는 합니다. 올해 송년회에서는 또 어떤 스타가 탄생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멋진 스타 탄생을 염원하며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쿠웨이트 AL-ZOUR REFINERY PJ현장

이번 PJ는 쿠웨이트 남동부에 위치한 항구도시인 AL-ZOUR(알 주르)에 정유 공장을 건설하는 공사다. 하루 61만 5000배럴의 저유황 연료 생산이 가능하며, 완공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정유공장이 된다. 총 5개 패키지 중 2번과 3번 패키지 공사로, Hydrogen과 유황 가공·처리 시설, 동력 및 부대시설의 설계와 구매, 시공, 시운전을 Flour사, 현대중공업과 함께 FDH JV를 구성해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회사는 이미 쿠웨이트에서 CFP PJ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바, 이번 AL-ZOUR REFINERY PJ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석유화학플랜트의 전 부문에 걸쳐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KUWAIT TMI



한류열풍으로 쿠웨이트 내 한국인의 위상이 달라졌다. 현지에는 K-POP, 태권도,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방면으로 한국인과 교류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최근 K-방역이 떠오르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IT산업 또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



쿠웨이트에서 '만디'를 꼭 먹어볼 것! 쿠웨이트 전통음식인 만디는 양고기와와 견과류, 쌀 등에 각종 향신료를 버무려 만든다. 만디에는 잘 발효된 요거트가 함께 나오는데, 기름진 고기의 맛을 잡아주는 데 김치만큼 탁월하다.



중동 날씨는 과연 덥지만 할까? 여름에는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는 다소 쌀쌀하다. 겨울에는 두꺼운 이불을 덮어야 할 정도로 춥다.

WORK & LIFE



비밀의 미학

뜨거운 여름, 높아져만 가는 습도와 온도 속에서 조금 더 가볍고 단순해질 수는 없을까?
 이번 7+8월에는 마음과 몸을 비우고 그 빈 곳을 보다 자유롭게 풍요롭게 사용해보자.
 싱잉볼과 함께 사운드 힐링에 나선 두 직원의 이야기, 몸속 안 좋은 것은 빼고 에너지는 더해줄 체내 독소 제거법을 소개한다.

청아하게 사운드 힐링



고요하게 싱잉볼 명상

재무기획팀
이희준 부장

정보보호팀
허채욱 차장

신나는 음악, 맛있는 음식, 근사한 공간까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즐길 거리는 점점 다양해진다.
하지만 자극은 또 다른 긴장을 부르기 마련.
그렇다면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비워낼 '진정한 휴식'이란 무엇일까?
이희준 부장과 허채욱 차장이 색다른 힐링 활동에 나섰다.

“
명상을 처음
시도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특히 싱잉볼이
도움 돼요. 정신을
정돈하는 것부터 깊은
마음치유와 수행까지
모두 가능하죠.
”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어낼 명상의 소리를 찾아서

“아무래도 일이 몰릴 때 스트레스받죠.
가끔 단어가 기억나지 않는대거나,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속상하기도 하고요.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텐데
내면에서는 아직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그런 걸까요(웃음)?”
입사 전 스카-윈드서핑 동호회에서 만난 것을 시작으로,
회사에서도 직장동료 겸 '취미 친구'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이희준 부장과 허채욱 차장. 차가운 눈 위에서 스트레스를
풀던 그들이 오늘은 강남에 위치한 테라피 네추럴
힐링센터를 찾았다. 릴렉스 종이라 불리는 싱잉볼을 이용해
명상을 배워보기 위해서다. 스키와 보드 이외에도 '인왕산 산책,
서핑, 근력운동, 전신 마사지'는 물론 '음악 듣기,
만년필 수리'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푼다는 두 사람이지만
명상은 모두 처음이라고.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넓은 실내,
큰 창문을 넘어 들어온 따스한 햇빛, 한쪽 벽면을 채운 식물
그리고 명상과 요가 물품. 공간이 주는 분위기에 마음까지
한결 차분해질 때쯤, 천시아 대표가 10여 종의 싱잉볼과
요가매트가 놓인 곳으로 안내한다.

“명상을 처음 시도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특히 싱잉볼이 도움 돼요.
정신을 정돈하는 것부터 깊은 마음치유와 수행까지 모두
가능하죠.”



소리, 진동, 울림으로 찾는 내 마음 밸런스

“소리와 진동에 집중하다 보니 울림이 손끝, 발끝까지 전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명상수업이 처음이라 몸이 굳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시도하면 할수록 몸도 마음도 편해질 것 같아요.” 체력을 기르는 데 관심이 많다는 이희준 부장은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아 좋았다는 평이다. 발리댄스 등을 섭렵하며 신나는 음악과 함께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는 허채욱 차장에게도 이번 명상은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코를 골까 봐 걱정하고 있었는데(웃음), 저도 모르게 살포시 잠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은은한 소리와 울림이 있어서 차분해지는 데 확실히 도움 된 것 같아요.”

고리에 고리를 무는 걱정, 답 없는 문제를 향한 정답 찾아 삼만리. 무의식중에 머리 속에 걱정이 맴돌고, 침대 위에서조차 마음이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에게 싱잉볼과 함께하는 명상을 추천한다. 약 50분 동안 이어지는 싱잉볼 명상 시간. 여러 크기의 싱잉볼만이 각자의 소리와 울림을 전하며 그 시간을 채운다. 도시 한 가운데서도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을 열고, 자신의 모습과 마음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비워볼 수 있다. 뜨거운 여름, 두 사람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본다.

“
내 고유의
진동을 찾고
뇌파가 안정화
되며 몸과
마음이 안정을
찾게 돼요.
원래 나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

싱잉볼,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노래하는 그릇’이라는 뜻을 가진 싱잉볼은 인도와 네팔, 티벳, 중국 등 히말라야 지역에서 사용되어 온 타악기다. 금, 은, 구리, 철, 주석 등 7가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 재질과 크기에 따라 다른 울림 파장이 일어나는데, 그 소리가 마치 노래하는 것과 같다 하여 싱잉볼이라 이름 붙여졌다.

“매트에 편하게 누워 볼게요. 다리는 어깨너비만큼 벌리고, 양손은 자연스럽게 옆에 두면 돼요. 그럼, 이제 눈을 감아봅니다. 머리, 어깨, 다리, 발 온몸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 다음 천천히 내쉬고요.” 몸의 모든 신경을 오직 천천히 호흡하는 데 집중한다. 호흡을 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풀어진다. 그때쯤, 아득한 곳에서 싱잉볼 소리가 들려온다.

그릇의 종류에 따라 ‘둥-’ 또는 ‘땡-’ 소리가 은은하고 은근하게 난다. ‘우웅-’하는 울림은 10초에서 30초 정도 길게 이어진다. 나무막대로 타격해 소리를 내거나 걸면을 부드럽게 문지르면서 마찰음을 내는 방식이다. 다른 그릇을 이용해 연이어 소리를 내면 소리가 섞이며 또 다른 진동과 울림을

만든다. 싱잉볼의 진동과 울림에 몸을 맡기고 누워 있다 보면 현재 내 몸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가 느껴진다. 소리와 진동이 반복될수록 몸에 힘이 점점 풀리는데, 간혹 코를 골며 잠드는 수강생도 있다고.

“처음 오는 분들 중에 깜빡 잠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긴장이 풀렸다는 뜻이니 좋은 거죠. 몇 차례 수업을 듣고 몸에 긴장을 푸는 방법을 익히다 보면 온전히 내 순수한 내면의식에 몰입할 수 있게 돼요. 그걸 사람들은 명상이라고 하고요.” 싱잉볼의 울림이 ‘동조효과’를 일으키며 신체 리듬의 균형을 맞추어 인체 고유의 진동을 찾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천 대표의 설명이다.

“내 고유의 진동을 찾고 뇌파가 안정화되며 몸과 마음이 안정을 찾게 돼요. 원래 나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싱잉볼이 질병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위로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나의 몸과 정신에 머물고 있는 긴장과 무의식을 알아볼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이유다.

info.

젠테라피 네추럴 힐링센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82길 5,
덕봉빌딩 2층
-
원데이 코스, 싱잉볼 베이직
코스(3시간), 어드밴스 코스(8시간),
심화 코스(16시간), 홀리스틱 힐러
코스(32시간)를 통해 사운드의
작용 원리와 치유의 원리,
상태에 따른 맞춤 테라피 등을
배울 수 있다. 자신만의 명상법을
개발해 전문적인 명상지도자가
될 수 있는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뜨거운 여름,

노폐물 빼고 활력 더하는— 디톡스

더위에 몸도 마음도
쳐지는 요즘. 몸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빼는 '디톡스'로
한결 가벼워져 보는 건 어떨까?

글. 박정렬 (중앙일보 기자)



1. 건강의 첫 단계, 독성 물질을 피하라

우리 몸을 해독(디톡스)하는 첫 단계는 쌓인 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농약, 환경호르몬, 식품첨가물과 같은 독성 물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다. 채소는 흐르는 물에 씻고 과일은 껍질을 벗기는 것이 잔류 농약을 줄이는 방법이다. 과일·채소용 천연세제를 이용하거나, 식초를 여러 방울 떨어뜨린 물로 헹구는 것도 좋다. 간혹 과일과 채소를 소금물로 씻는 경우가 있는데 삼투압 작용으로 오히려 농약 성분이 더 스며들 수 있어 피해야 한다.

쌀의 잔류 농약을 제거하려면 5회 세척 후 30분간 물에 불린 다음, 새 물을 부어 밥을 짓는 게 가장 좋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13년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쌀을 씻어 밥을 지을 때 백미는 66-80%, 현미는 89-93% 잔류 농약이 제거됐다. 항생제, 중금속 등은 육류나 어류의 지방과 머리 혹은 내장에 잘 쌓인다. 육류는 비계와 껍질을 떼고 생선은 머리, 내장을 제거한 뒤 더운물이나 미지근한 물에 담가 기름기를 뺀다. 가능하다면 가공식품보다 유기농 식품을 사고, 육류도 집단 사육보다 방목한 가축에서 얻은 것을 선택하자. 어패류 역시 양식보다 자연산이 독이 더 적다.

tip.
주스 맛의 성패는
과일에 달렸다!
맛있는
과일 고르기



수박. 줄무늬가 진하고 껍질이 얇아 보이는 것

파인애플. 녹색 잎이 싱싱하고 몸통이 단단한 것



2. 채소와 과일, 똑똑하게 마시는 법

이유 없이 졸리거나 피곤하고, 불어난 체중이 좀처럼 줄지 않는다면 식습관에 변화가 필요한 때다. 일반인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디톡스 방법 중 하나는 채소와 과일로 주스나 스무디를 만들어 끼니 대신 마시는 '주스 클렌즈(Juice Cleanse)'다. 영양 균형을 지키는 동시에 다이어트 효과도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채소와 과일을 껍질째 갈아 만든 주스**를 짧게는 1-3일에서 길게는 2주간 마시는 것을 주스 클렌즈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350ml 주스를 하루 6번 안팎으로 섭취한다. 즙을 내지 않고 갈아서 마시면 식이섬유를 더 많이 지킬 수 있어 소화에도 이롭다. 마트에 파는 주스를 마시는 것은 금물. 시중에 파는 100% 오렌지 주스 중 일부는 오렌지즙 100%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과일 없이 오렌지만 쓴다는 의미다. 게다가 색과 맛을 내기 위해 색소, 설탕, 방부제 등이 포함돼 디톡스 효과가 떨어진다. 정 만들어 먹기 어렵다면 영양성분표를 보고 과일 명과 물만 적힌 것을 산다.

주스 클렌즈에 정답은 없다. 체질에 맞게 도움이 되는 채소와 과일을 선택한다. 다만, 한 가지 색의 과채류보다 여러 색을 섞어야 몸이 더 이롭다.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 등 과일의 항산화 성분은 주로 색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주스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컨디션에 따라 주스에 우유를 넣거나 삶은 달걀, 연두부, 견과류 등을 곁들여 먹는 게 좋다.



복숭아. 알이 크고 색이 고르며 꼭지 부분이 둥근 것

포도. 알이 꼭 차고 껍질에 하얀 분이 많은 것

망고. 껍이 부드럽고 진한 노란색을 띠는 것

멜론. 냄새가 달콤하고 껍질 줄무늬가 금빛을 띠는 것

어떻게 뭐보지?

구독형 OTT 서비스 알아보기

집에서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인터넷 기반의 콘텐츠 제공 서비스가 더욱 각광받고 있다. TV 셋톱박스(Top)를 넘어선(Over) 서비스라는 의미를 가진, 이른바 OTT(Over The Top) 서비스다. 더욱 즐거운 '집콕'생활을 위한 대표 OTT 서비스의 특징과 장점을 알아본다.

넷플릭스 NETFLIX

netflix.com

코로나19 이후 바깥으로의 외출이 잠정적 중단되며 넷플릭스 가입자 수는 1억 8,200만 명을 돌파했다(3월 31일 기준). 넷플릭스의 가장 큰 특징은 다국적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답게 미국,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해외 드라마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자체 제작 콘텐츠도 이목을 끈다.

최근 흥행한 한국 드라마 '인간수업', '킹덤'을 포함해 '기묘한 이야기',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엘리트들' 모두 넷플릭스의 투자를 통해 탄생한 오리지널 콘텐츠다. 오리지널 콘텐츠의 첫 간판이라 불리는 '하우스 오브 카드(2013)'는 회당 제작비 40억 가량을 들여 제작했으며, 이 기간 넷플릭스의 유료 가입자는 전년 대비 36%가량 급증했다. 꾸준히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어온 넷플릭스의 작년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금액은 150억 달러(약 18조 2000억 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CJ E&M의 자회사 스튜디오드래곤과 지분 동맹을 다진 데 이어, JTBC콘텐츠허브와도 3년간 콘텐츠 유통 파트너십을 맺고 자체 드라마를 선보일 예정.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추천 등 적극적인 큐레이션 기능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개인의 시청목록을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작품을 추천하는데, 콘텐츠 수가 쌓일수록 개인의 취향에 꼭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 받을 수 있다.



베이직(1인용 - 480P) 9,500원
스탠다드(2인용 - FHD) 12,000원
프리미엄(4인용 - 4K UHD) 14,500원
최초 회원가입 시 30일 무료 체험 가능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자체 제작 콘텐츠의 '돈맛'을 보고 싶다면!
 - 신선하고 새로운 소재를 다룬 작품을 보고 싶다면!
 - 최대 30개 언어로 자막과 더빙 제공, 양질의 자막과 더빙이 중요하다면!



+ 오늘 뭐 보지?
한국 청소년의 '매운맛'이 궁금할 때 -
드라마 '인간수업'

'킹덤2'에 이어 한국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인간수업'. 학교의 한 모범생이 모바일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을 주선하다 고내 다른 학생에게 들켜 벌어지는 일을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다. 청소년 성범죄라는 아이템을 전면에 드러내 속도감 있게 전개하며 '사이다와 고구마, 분노와 용원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드라마'라 불리고 있다. MBC 드라마 출신 김진민 감독이 연출하고 '모래시계', '태왕사신기' 등을 만든 송지나 작가의 아들 진한세 작가가 쓴 학원물로, 기존 지상파 방송이 다루지 못했던 금기 영역인 청소년 범죄 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며 한국 청소년 드라마의 한계를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왓차 플레이 WATCHA PLAY

play.watcha.net

‘한국의 넷플릭스’라는 수식어와 함께 2016년 1월에 웹사이트를, 5월에 앱을 선보인 왓차 플레이. 영화, 드라마, 책 등에 한 줄 평과 평점을 남기는 아카이브 역할과 개인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왓차’가 선보인 OTT 서비스다. 그동안 축적해온 리뷰 데이터와 자체 보유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뛰어난 콘텐츠 큐레이션을 제공한다. 홈페이지와 앱 첫 화면에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맞춤 콘텐츠를 바로 띄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특징. 자체 제작 콘텐츠는 따로 없지만, 그 공백을 넷플릭스에는 없는 다른 영역의 콘텐츠들이 채우고 있다. 국내에서 시작한 서비스인만큼 국내 영화 및 드라마 수가 더 많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전용 온라인 상영관을 운영하는 등 국내 영화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한국영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매달 새로운 독점 콘텐츠를 공개하는 익스클루시브 서비스 역시 왓차 플레이만의 강점이다. 넷플릭스가 자본력을 바탕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여러 국가 콘텐츠를 다루어 다양성을 강조한다면, 왓차 플레이는 국내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작품을 발굴해 독점 공개하는 식이다. 박찬욱 감독의 첫 드라마 ‘리를 드러머 걸’이나 ‘체르노빌’, ‘퓨처맨’, ‘킬링이브’, ‘와이 언먼 킬’ 등이 해당한다. 소니픽처스, 워너브라더스, 20세기폭스 등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 6개와 계약을 완료해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베이직(1인용 - FULL HD) 7,900원
프리미엄(4인용, 4K UHD) 13,000원
최초 회원가입 시 2주 무료 체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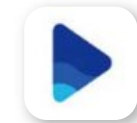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영화평론가를 비롯한 타인의 한줄평이 궁금하다면!
- 영화를 보며 화면 캡처를 하고 싶다면!
- 영화관이 너무 먼 독립영화 및 단편영화 덕후라면!



+ 오늘 뭐 보지?
스파이들과 로맨스들의 짜릿한 조합이 당길 때 - 드라마 ‘킬링 이브3’

정보 요원이 되고 싶은 정보국 직원 이브와 직업 만족도가 99.9%인 사이코패스 킬러 빌라넬이 서로에게 매혹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코믹 집착 추격전. 2018년 첫 시즌 공개 후 로트도마토 신선도 지수 97%를 받는 등 이전에 본 적 없던 ‘새로운 형식의 스파이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6월 24일 공개된 시즌3는 시즌1, 2의 작가 피비 윌러, 브리지, 에머랄드 펜넬에 이어 워킹데드 스타인프 ‘피어 더 워킹데드’의 작가 수잔 헤스코트가 바톤을 이어받아 참여했다. 남성 중심이었던 기존의 스파이물에서 벗어나 두 여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살인 사건에 대한 파격적인 묘사와 함께 주인공들 사이의 예상되지 않는 감정선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웨이브
베이직(1인용 - 7,900원)
스탠다드(2인용 - 10,900원)
프리미엄(4인용 - 13,900원)
박스뮤직 클라보 이용권(1인용 - 13,750원)
영화 + 베이직(1인용 - 13,900원)
영화 + 스탠다드(2인용 - 16,900원)
최초 회원가입 시 30일 무료 체험 가능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영화보다 드라마, 다큐보다 예능을 즐겨 본다면!
- 3사 뉴스, 예능, 음악방송, 스포츠 중계를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면!
- 허준, 눈스톱, 순풍산부인과, X맨 등 공중파 위주의 ‘추억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웨이브/티빙 WAVE/TVING

wavve.com
tving.com

웨이브는 지상파 3사(KBS, MBC, SBS) OTT 서비스인 폭(POOQ)과 SK텔레콤의 OTT 서비스인 옥수수(oksusu)가 통합해 2019년 9월 탄생했다. 현재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 등 100여 개 방송 채널과 23만여 개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상파 3사가 제공하는 뉴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고, LIVE메뉴를 통해 지상파 3사의 단편 콘텐츠, 종편 및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토종 OTT 서비스’임을 내세우는 것답게 박스 뮤직, SK텔레콤과 결합한 상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 개인에 따라 더욱 매력적인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박스 뮤직 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결합권의 가격은 13,750원. 통신비 월 8만9000원을 지불하는 ‘5GX프리미엄’ 이상 요금에 가입하면 웨이브의 유료 상품을 무료로 볼 수 있으며, ‘웨이브 앤 데이터’란 부가상품에 가입하면 최초 2개월간 월 100원만 내고 웨이브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티빙은 CJ 그룹 산하의 CJ E&M이 JTBC와 합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 tvN, Mnet, Olive, 투니버스 등 CJ E&M 콘텐츠는 물론 JTBC 및 기타 종편, 케이블 드라마, 예능을 VOD 또는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지만, 지상파 콘텐츠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200여 개의 라이브 채널은 물론 키즈관과 오디오선 끝판왕 등 자체적인 전용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SNS 연동을 통해 지인들과 동영상 공유하고, 실시간 채팅을 하며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소셜 TV 기능도 제공한다.



티빙
티빙 무제한(720P 고화질) 5,900원
티빙 무제한 플러스(1080P 초고화질) 9,900원
무비 프리미엄(초고화질 1080P) 9,900원
CJ ONE 회원 기준. 모바일, PC 포함 최대 4대까지 등록 가능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아이돌, 패션, 요리 등 카테고리 다양한 케이블 예능을 즐긴다면!
- ‘신서유기’,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더탈출’ 등 새로운 포맷의 예능을 좋아한다면!

슬기로운 대우건설인 생활

2020
기업문화
캠페인

함께하고 참여하는 기업문화

'소통'을 주제로 막이 오른 2020 기업문화 캠페인. 기업문화는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는 만큼, 직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회사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구류 및 생활용품 등의 경품을 이벤트 선물로 내세워 기업문화 캠페인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음 캠페인 이벤트에서는 어떤 기념품이 경품으로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1

올해 대우건설 기업문화 캠페인에서는 친숙한 속담 틀 안에 직장인 밀착형 조언을 끼얹은 '2020新 속담패키지'를 선보였다. 몰입도 있는 영상과 심플한 포스터,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해 패러디를 통한 재미와 회사생활에 대한 공감을 더했다.

기업문화의 시작은 '소통'으로부터

2020년 대우건설 기업문화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소통'이다. 마주 보며 대화하고, 전화와 메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커뮤니케이션으로 가득 차있는 우리의 일상. 우리는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는지'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 회의가 빈번하고 대화가 많은 조직이라고 해서 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의 첫걸음은 구성원들끼리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
#1-
<경청>편
바로보기

경청 끝에 소통 온다

경청의 사전적 정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문장만 보면 매우 쉬운 일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듣는 것만으로 자신이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만약 자신이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면, 오른쪽에 제시된 경청의 7가지 원칙을 확인해 보자. 경청을 실천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경청의 7가지 원칙

1. 상대방과 눈을 마주친다.
2.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3. 상대방의 표정, 몸짓, 침묵 등 비언어적 단서에 주의를 기울인다.
4. 필요하다면 메모를 한다.
5. 충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진다.
6.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다시 말한다.
7. 들리는 이야기의 이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한다.

#2



+
#2-
<명확한 전달>편
바로보기

가는 말이 명확해야 오는 보고서가 명확하다

커뮤니케이션에서 '나는 당연히 이해했을 줄 알았는데'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특히 조직에서는 '이심전심', '척하면 척' 혹은 '눈치껏', '알아서 잘 알아차리느' 소통방법이 능력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런 생각은 서로에게 착각과 오해만 더할 뿐이다. 내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다면, 인류 최초의 설득 전문가인 고대 그리스 법정 소피스트들의 프렙기술(PREP)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명확한 전달을 위한 '프렙(PREP) 기법'

- P. 짧고 명료하게 말하는 Point
- R. '왜냐하면'의 근거를 대는 Reason
- E. 사례를 드는 Example
- P. 다시 키워드를 강조하는 Point



COVID-19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 공공시설과 회사들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각자의 방안을 찾아 나서고 있다.

PRUGIO 



코로나19 등의 환경변화에 발맞춘 견본주택 소개 영상. 직접 모델하우스에 가지 않아도 특별 게스트가 주택 내부를 둘러보며 자세한 설명을 들려준다.



최근 견본주택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출입구 내 소독발판 및 열화상 카메라 설치, 자체 방역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사진, 광명 푸르시오 센트베르), 거리 유지 스티커를 부착해 방문자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각 상담석에는 아크릴판을 설치해 상담사와 고객 간 비말방지를 예방한다 (사진, 화서역 푸르시오 브리시엘).

견본주택, 어디까지 가봤니?

장기화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이 변화하고 있다. 회사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방역 시스템을 갖추어 그 변화에 대응 중이다. 특히 견본주택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기에 더욱 철저히 운영한다.

출입구에 소독발판 및 매트와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해 소독은 물론 이상 체온자를 판별해 출입을 제한하고, 방문자간 일정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거리 유지 스티커를 곳곳에 부착해 두었으며, 각 상담석에는 아크릴판을 설치해 상담사와 고객 간 비말접촉을 예방한다. 이를 비롯해 방문객 사은품 마스크와 손 소독제 및 전신소독기 비치, 방문자 방역록 작성 등의 방법을 통해 운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방문객의 동선을 따라 집기품을 소독한다. 또한, 방문객이 특정 시간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문 고객 대상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고객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견본주택 내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입장이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을 신청한 고객들에게 QR코드를 전송하고, 이 QR코드를 이용해 비대면 입장을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매일 업무 종료 전 자체 방역을 진행한다.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새로운 비대면 만남 형태도 구축했다. 예비 청약자가 푸르시오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입장하여 3D로 촬영된 주택 내부를 360도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오프라인 견본주택을 개관할 수 없어 그 대안으로 실시된 방편이지만, 유튜브 및 영상광고, 이벤트 등과 연계하여 더욱 친근하고 유용한 홍보 도구로 다가서는 중이다.

더 많은 사람과 공감하고 감응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한다. 지난 3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천호동 대우한강베네시티 상가를 비롯해 5개 사업장의 임대료를 2개월간 30% 낮추는 등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임차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것 역시 그 활동의 일환이다.

정성을 담아 마음을 전해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마스크



아기들이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기천사들아,
항상 건강하길
바랄게!



튼튼하고 예쁘게!
건강하고 기운차게!



지난 5월, 대우건설
임직원들이 가족과 둘러앉아
사랑을 담은 수제 마스크를
만들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한,
조금 특별한 봉사활동이다.

두근두근, 마스크
전달하러 가는 길



마음을 담아
정성껏
만들었어요



한땀한땀
마음을 전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대우건설 임직원 가족이 각자의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마스크 제작 키트**를 받아들었다. 태어나자마자 혼자가 된 입양대기아동들을 위해 직접 마스크를 제작해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제작 키트를 열면 마스크 원단과 안감, 고무줄 끈, 실, 바늘 등이 들어있다. 마스크는 제일 먼저 얼굴의 입체감을 고려해 코 부분의 바느질을 한 뒤, 안감과 겹감을 덧붙여 가장자리를 박아 만든다. 양옆으로 고무줄을 끼우고 천을 뒤집은 다음, 남은 구멍을 메우고 마스크 고리를 걸어주면 완성이다. 언뜻 보면 간단한 작업 같지만, 낯생 처음 바늘을 잡아본 초등학생 딸부터 모처럼 섬세함을 발휘하느라 두툼한 손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는 아빠까지. 투박하고 서툰 손길이지만, 직접 만든 마스크가 입양을 대기 중인 아동들에게 전달되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자꾸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다.

250여 가정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500매의 수제 마스크는 입양을 대기 중인 아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전달됐다. 학대, 입양대기, 소외계층의 아동들에게 보내지며, 마스크 키트 구입비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기초양육물품, 의료비, 생활용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울산 북항 에너지 터미널 1단계 LNG PKG 계약체결

지난 6월 26일, 회사는 울산 북항 석유제품 및 액화가스 터미널 1단계 LNG PKG 건설공사 원청 계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울산 북항 내에 21만 5천개의 LNG 탱크 17기와 약 100만 톤 용량의 기화송출설비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회사는 SK건설과 JV를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020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 수상

지난 7월 9일, 회사의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가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하는 '2020 한국서비스대상' 시상식에서 아파트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한국표준협회는 대우건설 푸르지오가 끊임없는 혁신과 서비스 상품 발굴을 통해 고객 편의와 주거문화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상인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주

지난 5월 29일, 회사는 대구 상인동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332-100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번 사업은 지하 2층-지상 29층의 아파트 9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청라 국제도시 FD5BL 블록형 단독주택 신축사업 수주

지난 5월 29일, 회사는 청라 국제도시 FD5BL 블록형 단독주택 신축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 105-145-7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번 사업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블록형 단독주택 34개 동, 354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남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수주

지난 5월, 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남청주 현도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수주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일원에 위치한 이번 사업은 1,501,146㎡ 규모의 부지조성 공사로 회사는 착공일로부터 50개월 동안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대구 서성로 1가 주거복합 신축사업 수주

지난 5월 28일, 회사는 대구 서성로 1가 주거복합 신축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대구시 중구 서성로1가에 위치한 이번 사업은 지하 5층-지상 44층의 아파트 298세대 및 오피스텔 70실을 건설할 예정이다.



하남감일지구 1BL 주상복합 신축사업 수주

지난 5월 29일, 회사는 하남감일지구 주상복합용지 신축공사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내 주상복합용지에 위치한 이번 사업은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496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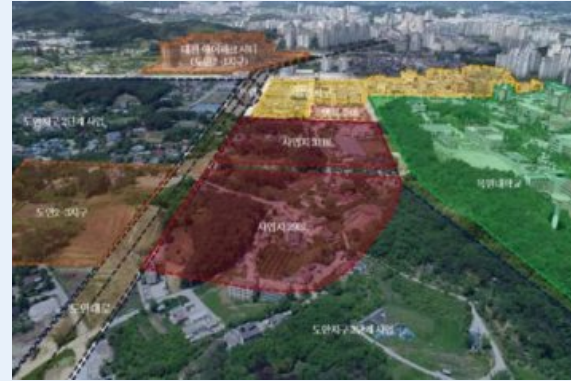
남양주 다산진건 A3, A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신축사업 수주

회사는 지난 6월 15일, 남양주 다산진건 A3, A5BL민간참여 공공주택 신축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심의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 A3, A5BL에 위치한 이번 사업은 A3BL 1,272세대와 A5BL 928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완주 삼봉지구 B2BL 공동주택 신축사업 수주

지난 6월 12일, 회사는 완주 삼봉지구 B2BL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전북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705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번 사업은 지하 1층-지상 25층, 공동주택 6개 동으로 605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대전 도안 2-5지구 29BL, 31BL 공동주택 신축사업 수주

지난 6월 15일, 회사는 대전 도안 2-5지구 29BL, 31BL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70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번 사업은 29BL 894세대와 31BL 862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시흥센트럴푸르지오현장 준공

지난 5월 28일, 시흥센트럴푸르지오현장이 시흥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에 위치한 이번 사업은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아파트 2,003세대 및 오피스텔 250실을 건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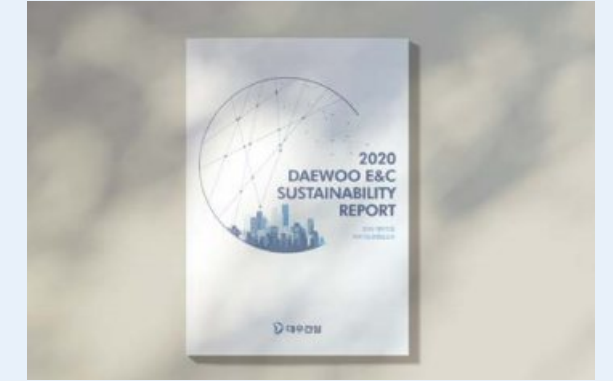
천안레이크타운3차푸르지오현장 준공

지난 5월 27일, 천안레이크타운3차푸르지오현장이 천안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위치한 이번 사업은 지하 2층-지상 37층 아파트 8개 동, 총 1,06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했다.



CEO 안전점검 실시

지난 6월 17일 윤정신도시파크푸르지오현장에서 CEO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 사장은 기본과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로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 안전 활동 실시를 당부했다.



2020 대우건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20년도 회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발간됐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현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영업 및 입찰 시 지속가능경영 실적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2012년부터 9년째 발간을 이어오고 있다.



2020 대우가족 금연클리닉 시행

2020년 대우가족 금연클리닉 1차가 시행됐다. 참여자들에게는 금연보조제와 유선 및 온라인 상담, 금연 실천 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금연 시작 후 8주까지 검사를 진행하며 음성 판정을 받은 참여자에게는 금연 유지 포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동방사회복지회에 후원금 전달

5월 26일, 본사 12층 대회의실에서 회사는 전문사회복지기관인 동방사회복지회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동방사회복지회에서는 참여형 후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는 가정에서 마스크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비대면 방식의 가족참여 봉사활동을 통해 총 500매의 마스크를 제작 및 지원할 계획이다.

5 + 6 독자의견

1등
브리즈 제습기



현장준비반(후직) 이선희 대리
5+6월호 표지를 장식한 '현장STAR그램'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침 현장이 집 근처라 오가면서 보아 익숙했는데 대우건설 최초의 프리콘 현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그 기술력과 직원 분들의 노력이 눈에 보이는 듯했습니다. 대우건설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현장 직원분들이 이뤄낸 모범적인 팀워크 문화에 감동했습니다. 고생하신 직원분들께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2등
백화점상품권 5만 원권



최한결(배관설계팀 최종필 차장)
저는 '정대우로드'가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평소에 역사를 좋아하는데, 이번 이라크 편이 고대 역사를 자세하게 설명해주어서 저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좋은 정보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가은(탐정지형사티푸르지오2단지현장 이고진 과장)
'건강하고 맛있개, 땀땀이 집밥 김선생들' 기사가 가장 유익했어요. 제가 감아지 두 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직접 간식을 만들어줘야지' 항상 다짐만 했는데 이번 사보를 보고 한번 따라 해 보려고요. 아빠가 맨날 그러거든요, 집에 오면 반겨주는 게 개 두 마리뿐이라고ㅎㅎ 아빠를 향한 제 애정을 아빠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

3등
기프트콘 2만 원 상당



원자력사업팀 조병현 과장
'내용보고서'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면역력을 키워 코로나 블루에 다가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와 가족의 생활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 NLNG T7 OFFSHORE PJ (PCM) 신창호 과장
워라밸 칼럼 첫 장 '네가 있어 다행이야'라는 문구와 사진을 보며 8년 전 세상을 떠난 저의 '심바'가 생각났습니다. 심어 년을 함께 보내며 심바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사랑으로 무뎠던 저지만 저도 누군가에게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바야-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고 행복하지? 못 가서 미안해. 형아가 곧 보러 갈게-

이지희(IT운영팀 양경주 대리)
'고대 문명의 시작점에서, 이라크'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민족의 교체 및 문화의 변화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라크라는 나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우건설인>에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독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한층 성장한 <대우건설인>은 다양한 소식과 정보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알찬 사보를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사보 참여는 우측 QR코드와 담당자 문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김민정 대리
minjung.kim@daewoenc.com
02-2288-3297



응모 방법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좌측 QR코드를 스마트폰의 QR리더기로 스캔하시면 QR코드에 내장된 다양한 정보가 바로 실행됩니다. 또는 주소창에 모바일 사보 주소(m.dwconstin.com)를 입력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이번 호 선물
1등-1명 LG전자 프라엘 초음파 클렌저
2등-2명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3등-3명 기프트콘 2만 원 상당

푸르지오 SNS 구독 이벤트 당첨자 발표

<대우건설인> 독자를 대상으로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된 유튜브, 인스타그램 구독 이벤트 당첨자(인스타그램 ID)를 발표합니다.

경품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주소 및 성함)는 참여하신 인스타그램 계정 메시지를 통해 취합 예정입니다. 발행일 기준 2주 내 회신이 없을 경우 당첨 사실이 취소됩니다.



도마
5명

Taehy***g_oleld
Hwahy***nara
liz_p***sj
yjcho***8
hanhe***ng79



커틀러리
10명

Meizz*** / Namju***
Hyesh***_ / Chris***_kim
csj11***6 / yangj***ug404
sora***_ / gangr***ouse
apr.j** / sooyo***8482



블록보틀
20명

Leesu***i123 / dukky***hoi / Jaeu***e
Sewin***troll / Joons***.lee / the20***
sub_1*** / daewo***eon / geege***mmer
eeejj*** / dongh***7777 / wkcha***
_dan*** / Kyou***n_83 / Leeth***
Hyemi***4 / Ateli***and / Jchoi***q
Hyang***ng_ju / Kyung***88